

지역 소식통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정읍시, 4월 17일부터

정읍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또, 총사업비 4억8천만원을 들여 179개소에 최고 제한 속도 규제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합표지판 교체 및 신설, 노면표시 등의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개월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소방서, 30년 이상  
위험물제조소 예방 검사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가 지난 25일 고창 관내 30년 이상 노후 된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30년 이상 경과된 위험물제조소들은 시설의 노후화로 대형 사고 위험성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노후 위험물제조소의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내 노후 된 위험물제조소 등 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물 저장·취급의 실태 조사,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백승기 서장은 “노후 위험물 시설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남 영광군 경계상 축사허가 민원 관련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추진

유기상 고창군수,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서 주요의제로 제안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경계상 축사허가에 따른 민원 관련, 고창군이 적극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6일 고창군은 “회동리 주민들과 함께 행정심판과 소송, 법률자문 등을 검토하고 전라북도와 협조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25일) 유기상 고창군수도 김제시에서 열린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 안전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도 관련 현안에 공감하며 적극적 지원의사를 밝혔다.

또 군은 환경부·전북도·전남도, 주변 4개 시·군에도 건의해 빠른 시일 내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 대신면 회동리 경계지역인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에서 축사가 허가돼 고창주민들이 축사 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고창군, 영광군의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각각 265m에 위치하고 있다.

축사 허가 신청 당시 축사허가 제한 거리는 고창군 500m, 영광군은 200m 내에서 축사 허가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고창군에선 영광군에 해당 부지

가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저촉이 된다는 내용을 회신했고, 영광군에서도 불허가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사업주가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영광군이 패소하면서 결국 지난해 10월 축사 건축허가가 처리됐다.

이와 관련 고창군청 김수동 생태환경과장은 “인접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해 제2의 남계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자체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자살 예방 행복 도시 만들기 ‘총력’

휴먼시아·내장상동 우미아파트 ‘생명고를 레벨업 사업’ 추가 선정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 맺고 정신 건강검진, 사례관리 등 진행

정읍시가 자살 고위험 시기인 불철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과 농촌 지역 자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3~5월은 전국 평균 연중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기로 자살 고위험군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경제적·육체적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로 자살 시도 발생 위험성 증가의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는 내장상동 우미아파트와 휴먼시아아파트를 ‘생명고를 레벨업’ 사업 대상 아파트로 추가 선정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생명고를 레벨업’ 사업은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 건강검진과 상담, 사례관리,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등을 진행한다.

또한, 자살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간담회와 자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활동을 벌인다.

지난해에는 수상동 2개 아파트 입주인 285명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검진을 진행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72명을 발굴했다.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센터 이용 등록을 마쳤으며,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음 건강 상담과 맞춤형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심리방역을 펼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민방위 교육도 온라인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1시간 사이버 교육, 현형증 제출도 이수 인정

정읍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작년 이어 올해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한다.

올해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전 민방위대원 4,875명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시간의 교육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이 기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

들은 보충 1차(8.1~9.15), 보충 2차(10.1~11.15) 기간에 추가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훈련 통지서 또한 직접 교부를 제한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교육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시간 분량의 동영상 시청 후 객관식 평가(재시험 가능)를 통해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수료 처리된다.

PC와 스마트폰 구별 없이 네이버 또는 다음 포털사이트에 ‘디지털 민방위 교육’(https://www.civildefense.co.kr)을 검색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면 교육을 통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할애 보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2021년도 현형증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교육 수료로 인정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농업경쟁력과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며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기계 공동활용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정읍시, 권역별 임대사업 활성화

정읍시가 농업경쟁력과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며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 경영비를 절감하며 농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농기계는 부족한 일손 해소는 물론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된 영농활동에 따른 농작업 부담을 덜어주는 등 농가에 큰 도움을 준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4개소(본소, 북부, 서남권, 동부)의 임대사업소에 101종, 1,46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 공동활용 실적은 해마다 이

용이 증가해 약 15,508회(전년 대비 30% 증가) 이상 임대로 농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간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는 약 73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일환으로 고부, 영원, 덕천, 이평 등 서북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준공해 기존 임대사업소와 거리가 먼 농촌의 농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협과 작목반, 연구회 등을 통한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인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신규 및 노후·관리 정비 임대 농기계 88종, 276대를 구입해 임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명을 대상으로 3톤 미만 소형 특수 농기계(농용용 소형굴삭기, 스키드스티어, 지게차) 조종 면허 취득과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위도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추진

1,200만원 들여 정수장 내 유충발생 차단시설 설치

부안군은 최근 제주도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 사태와 관련하여 17일 수자원공사 부안지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위도정수장 및 정수장 주변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수장 시설물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점검으로 정수장 내·외부 청결상태와 정수처리 적정 운영 여부, 여과지 및 정수지 내 유충 차단시설 설치 유무 등 수돗물 생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유충 차단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보완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위도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예산 1,200만원은

투입하여 여과지 내 이중 출입문과 에어커튼, 방충시설을 설치하고 정수장 내 창문 및 방충망 교체, 정수지·배수지 내부로 유충 유입이 원천 차단되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인천·수도권 지역에 이어 최근 제주도 수돗물 유충발생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위도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통해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돗물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